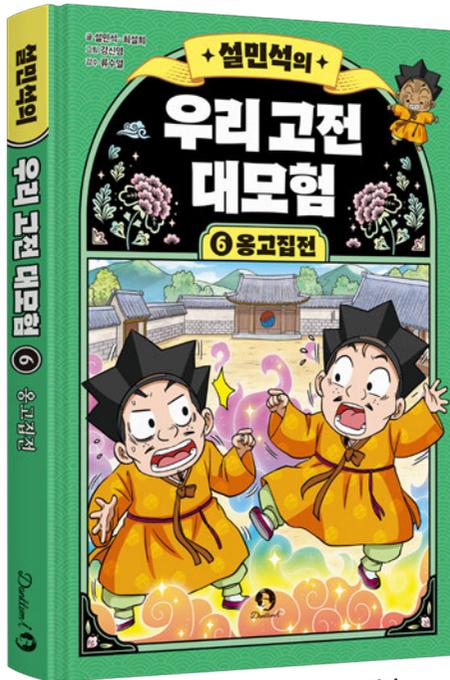


# 단꿈아이 독서지도안



설민석의 우리 고전 대모험 - ⑥ 옹고집전  
글 설민석·최설희 | 그림 강신영 | 감수 류수열



- 이 책은 <설민석의 우리 고전 대모험> 6권을 활용하여 제작한 비매품입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주)단꿈아이에 있습니다.

©Dankumi Corp.



# <옹고집전>을 한번에 정리해 보요!

1

## 심술궂은 옹고집



옹고집

시주는 무슨,  
매운맛 좀 보래!

맹랑촌에 옹고집이라는 부자가 살았는데, 성질이 고약하고 심술궂기로 유명했어요.

4

## 옹고집 대 옹고집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은 서로가 진짜라고 다투지만,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어요.

2

## 월출봉 스님



스님

어이쿠, 스님 살려!

월출봉 젊은 스님이 시주를 청하자 옹고집은 공짜 관상만 보고 흠뻑 두들겨 팼어요.

3

## 허수아비 옹고집



화가 난 월출봉 도승들이 허수아비로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옹고집의 집으로 보냈어요.



5

### 사또의 판결



사또

족보를 줄줄 읊는  
자가 진짜이다!

마을 사또의 질문을 통해 진짜  
옹고집이 가짜라고 판결나요.

6

### 쫓겨난 옹고집



쫓겨난 진짜 옹고집은 몇 해 동  
안 정처 없이 떠돌며 갖은 고생  
을 해요.

8

### 개과천선한 옹고집



옹고집

새로 태어난 듯이  
베풀며 살리라.

개과천선하여 새사람이 된 옹고  
집이 착하게 살아가요.

7

### 돌아온 옹고집



뉘우친 옹고집이 부적을 받아 집  
으로 돌아오니, 가짜 옹고집과  
자식들이 허수아비로 바뀌어요.



# 교수님! <옹고집전>은 어떤 책이에요?

## ◆ 진짜와 가짜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이야기, <옹고집전> ◆

**지은이** 알려지지 않음

**시대적 배경** 조선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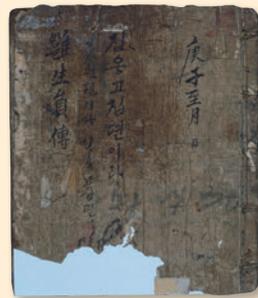
**지은 시기** 조선 후기

**갈래** 풍자 소설

**주제** 개과천선, 진짜와 가짜의 대립

<옹고집전>은 심술궂고 자기밖에 모르는 옹고집이 벌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이야기를 담은 고전 소설이에요. 진짜 옹고집은 돈과 힘은 가졌지만 성품은 최악으로 나빴어요. 그런 옹고집이 허수아비로 만든 가짜 옹고집과 다투다가 집에서 쫓겨나 갖은 고생을 겪은 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새사람이 되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고집’이란 본래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여기에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옹졸하다는 의미의 ‘옹-’이 붙어 ‘옹고집’이 되면 억지가 매우 심하여 자기 의견만 내세워 우기는 성미, 또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지요.



▲ 옹고집전

## ❁ 본래 판소리였던 <옹고집전>

<옹고집전>은 본래 판소리 열두 마당 가운데 하나로 <옹고집 타령>이라는 제목을 달고 판소리 창으로 불렸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새롭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기존의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 많았어요. 옹고집처럼 인성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분수에 넘치는 재산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이런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전문 소리꾼이 흥겨운 장단에 맞추어 이야기하게 되면서 판소리 창으로 불리게 되었고, 지금은 소설 형태로만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 ◆ 이 책을 함께 읽는 부모님·선생님께 ◆

<옹고집전>은 다른 옛날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악행을 일삼던 인물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착한 인물로 거듭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옹고집전>을 읽는 보람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어렸을 때에는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주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인간의 성장이란 자신을 시작으로 가족과 이웃, 지역 사회, 국가 단위로 점점 시선을 확대해 가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옹고집은 이러한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인물입니다. 미성숙한 어른이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주목해 읽는다면 <옹고집전>을 읽는 보람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류수열 교수



## 설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 ❁ 옛날에는 스님들이 돌아다니며 시주를 받았나요?

시주란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절이나 승려에게 물건을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해요. 원래 시주는 부처가 살던 초기에 도를 닦는 승려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얻은 음식만을 먹었던 법에서 처음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널리 퍼지면서 일반인들은 이런 승려에게 음식을 시주함으로써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 것도 심 봉사(僧)가 눈을 뜨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지요.

### ❁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 족보를 줄줄 외을 수 있었나요?

조선의 사대부가에서는 조상의 이름을 외우고 제사 지내는 것을 필수적인 의무로 여겼어요. 족보에 관한 지식을 닦는 ‘보학(譜學)’이라는 학문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자신의 조상을 알고, 제사를 모시는 것이 가문의 지위를 높이는 방법이라 여겼기 때문에 정성을 다했답니다.



▲ 족보

## ❁ 잘못을 저지르면 정말 곤장을 맞았나요?

곤장은 버드나무로 넓적하고 길게 만든 몽둥이를 말해요. 조선 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을 묶어 놓고 곤장으로 죄인의 볼기, 즉 엉덩이 부분을 치는 형벌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곤장을 많이 맞으면 죽음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에 곤장을 때리는 형벌은 아주 크고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내려졌어요.



▲ 곤장

## ❁ 물지게는 어떤 물건인가요?

수도관이 없던 옛날에는 집에서 어떻게 물을 썼을까요? 집 안이나 근처에 우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집마다 먼 길을 가서 물을 길어다 써야 했어요. 양반집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 혹은 주막과 같이 물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곳에서는 하인이나 심부름꾼을 시켜 물을 길어 오게 하기도 했는데, 물을 길어다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물장수도 있었지요. 이때 물을 나르는 운반 도구가 물동이를 양쪽에 매단 물지게였어요. 무거운 물이 쏟아지지 않게 짊어지고 나르려면 힘과 기술이 필요했을 거예요.



## 설쌤과 함께 생각을 나눠 보요!

**Q** 도승들이 옹고집을 혼내 주기 위해 생각해 낸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왜 그 방법을 쓰게 되었을까요?

도승들은 허수아비로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보내 진짜 옹고집이 집에서 쫓겨나 갖은 고생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도승들은 이를 통해 단순히 진짜 옹고집을 벌하고 고통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옹고집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도록 이끌고 있어요.



**Q** 사또는 진짜 옹고집을 가리기 위해 족보와 재산을 물었어요. 이러한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사또가 족보와 재산을 물은 것은 진짜라면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지요. 그러나 이때 오히려 가짜 옹고집이 정확히 대답을 합니다. 족보나 소유물의 내용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외워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사또는 이런 점을 고려해 판결을 했어야 옳아요.



❁ 만약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진짜 나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또 이럴 때 내가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가짜가 나타나 내 행세를 하면 정말 황당할 것 같아. 현대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과학 기술로 내가 진짜라는 것을 밝히겠어!

‘옹고집전’에서는 도술을 이용해 허수아비로 가짜를 만들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오히려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때, 기술로도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것은 나의 품성이라고 생각해. 나만의 가치관과 태도를 통해, 내가 진짜라는 것을 밝힐 수 있을 거야.



.....

.....

.....

# 쏙쏙 들어오는 어휘력 노트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음식을 어느 곁에 먹었는지 모를 만큼 빨리 먹어 버리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P.20

**시주**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절이나 승려에게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P.29

**의기양양**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P.41

**감감무소식** 소식이나 연락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해요. P.43

**본관** 한 집안의 맨 첫 조상이 태어난 곳을 말해요. P.72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에요. P.97

**부적** 잡귀를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이는 종이를 말해요. P.106

**개과천선**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에요. P.115

**호의호식**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P.131

**정곡** 가장 중요한 요점 또는 핵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P.134

잘 읽고 이어지는  
문해력 퀴즈에  
도전해 보세요!



# 읽고 푸는 문해력 퀴즈

- 1 글을 읽고 알맞은 단어에 ○ 해 보세요.

“(시주 / 기부)를 받으러 다니는 스님에게  
고약하게 군다고 합니다.”

- 2 월출봉 도승들이 옹고집을 어떻게 혼내줄지 의논할 때,  
말한 내용이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 (     )

- ① 호리병에 담아서 염라대왕께 던져 버리자.
- ② 매가 되어 발톱으로 긁어 버리자.
- ③ 바다에 빠뜨려 찌물을 잔뜩 먹게 하자.

- 3 <옹고집전> 등장인물의 대화를 읽고 이야기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     )

- ① 사또: 진짜 옹고집이라면 본관을 말해 보거라!
- ② 가짜 옹고집: 저희 옹가 집안의 본관은 황해도 해주입니다.
- ③ 진짜 옹고집: 본관까지 잘 아는 것을 보니 과연 진짜가 맞네요!

4 <옹고집전>의 내용으로 맞으면 ○, 틀리면 × 해 보세요.

- ① 도승들이 지푸라기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냈습니다. (      )
- ② 사또는 현명한 재판을 통해 가짜 옹고집을 찾아내 곤장을 때렸습니다. (      )
- ③ 옹고집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월출봉에서 도를 닦아 스님이 되었습니다. (      )

5 글을 읽고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을 찾아보세요. (      )

심부름을 다니느라 밥을 먹지 못한 바우는  
뱃가죽에 등가죽이 들러붙을 지경이었어요.  
설쌈, 미호와 장터의 주막에 도착해 국밥이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지요. 눈 깜짝할 사이  
바우의 국밥 그릇이 텅 비었어요.

- ①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 ②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는다.
- ③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하다.
- ④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 한 장으로 정리하는 독서 일기



## 미호의 독서 일기

1. 옹고집의 심술은 놀부를 떠올리게 한다. 두 사람이 심술 대결을 한다면 누가 이길지 궁금하다.
2.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고 해도 가족들까지 나를 몰라본다면 몹시 서운할 것 같다.
3. 옹고집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개과천선하여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 설쌤의 독서 일기

1. 옹고집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됃됨이가 재산에 미치지 못했다. 사회의 지도층이나 상류층이 그에 걸맞은 모범을 보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현대 사회의 미덕이 될 수 있기를.
2. 못된 옹고집이 쫓겨났다가 개과천선하여 돌아오는 과정은 참된 나의 의미를 탐색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선하고 참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_\_\_\_\_의 독서 일기



❁ 재미있었던 장면, 베스트 3

Blank writing area with three horizontal dotted lines for notes.

❁ 인상 깊은 문장이나 대사, 베스트 3

Blank writing area with three horizontal dotted lines for notes.

# 정답 및 해설

1 정답 시주

**해설** '시주'는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승려에게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2 정답 ③

3 정답 ③

4 정답 ①-O, ②-X, ③-X

**해설** 사또의 재판을 통해 진짜 옹고집이 가짜 판결을 받고 곤장을 맞았습니다. 옹고집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벼랑에서 뛰어내려 죽으려다 도승을 만나 부적을 받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5 정답 ③

**해설** 음식을 어느 곁에 먹었는지 모를 만큼 빨리 먹어 버리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은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이에요.

6 정답 ①-㉠, ②-㉡

**해설** '호의호식'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 '개과 천산'은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7 정답 ②

**해설** 옹고집은 엄청난 부자였지만 성미가 고약했어요. ㉠ 옹고집은 집으로 시주받으러 온 스님에게 쌀은 주지 않고 매를 때려 내쫓았어요. ㉡ 이에 화가 난 스님들이 허수아비로 가짜 옹고집을 만들었어요. ㉢ 가짜 취급을 받으며 쫓겨난 옹고집은 갖은 고생 끝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와 새사람이 돼요. ㉣